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2025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개최

✎ 이루세 기자 | ⓒ 승인 2025.11.17 05:25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호, 이하 공사)가 지난 12일 지사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와 저수지, 용수간선 수질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용수 수질 오염관리 실적과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구성원별 역할 분담에 따른 주체별 활동 실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안순용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수자원관리부장을 비롯한 공사 직원, 운영대의원, 김포신문 기자, 인천시 계양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25년 김포지사 수질오염관리 실적 설명 ▲지사 관리 농업용수 수질 관련 현안 공유 ▲참여 주체별 수질관리 이행실적 공유 ▲기념사진 촬영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성동 저수지, 신곡 양배수장의 수질은 양호했으나 김포간선 중간부인 오니산·가현 양수장과 말단부인 전류 양수장에서는 부유물질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류 양수장은 녹조 현상인 클로로필-a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농업용수 공급에는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말단부에 위치한 하수 시설들에서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농업용수로 내 연결된 우수 배제시설에 대한 지자체 관리 협조, 오염원 유입 발견 및 농업 폐기물 등 투기 행위 발견 시 적극적 신고 요청 등을 당부했다.

이어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는 서부간선수로 수질관리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수질환경보전회 선도지구 실적보고’를 진행했다.

협회는 하반기 활동으로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환경정화 활동 결과와 어린이 대상 환경 및 생태 보전 캠페인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부간선수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는데 하루 동안 거뒀던 폐기물만 3.16톤(t)”이라며 “일반 쓰레기가 대부분이었으나 비닐하우스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비닐과 폐타이어, 도기 등도 많았고 불법 소각 흔적도 발견돼 정화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순용 부장은 “부천과 김포공항 쪽에서 농업 폐기물 투기 행위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사 소유의 여유 부지에 폐기물을 쌓아놓아서 (공사가) 치우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 개선 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루세 기자** gimpo1234@naver.com
